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7.14총파업
특별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함께 사는 총파업!

코로나 위기, 산업전환 대응 투쟁은 사업장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재벌 퍼주기식 위기극복, 노동배제 산업전환

코로나19 위기극복, 산업전환 등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맞고 있는 지금, 정부는 재벌 퍼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 보다 기업 지원에만 매달립니다. 산업전환을 맞아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재벌 대기업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뒷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 뿐입니다. 그런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아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습니다. 나아가 노조파괴까지 이어집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뛰어넘는 단결과 연대! 산별노조!

재벌 중심의 위기 극복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산업전환을 만들고,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넘어서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금속노조가 진정한 산별노조로서 지역 연대, 전국 총파업을 통해 힘을 발휘해야 정부 정책에 개입하고 노조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임단협으로는 산업전환 대응, 코로나 위기 대응, 노조법 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산별노조로서의 단결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7월 14일, 지부는 총파업 대회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개최하고 기획재정부까지 행진합니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부 전체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냅시다. 우리의 투쟁만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노동참여 정의로운 산업전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재벌퍼주기식 위기극복 중단! 산재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2021 투쟁승리 대전충북지부 총파업대회

■ 일시 : 2021년 7월 14일(수) 14시

■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기획재정부까지 행진)

가자! 7.14총파업!

노동참여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재벌퍼주기식 위기극복 중단!

산재처리 기간단축 개선방안 마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총파업대회

7월 14일(수) 14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